

한국응급구조학회지 논문심사 규정

* 제정: 2009. 4.

* 개정: 2012. 6.

* 개정: 2014. 5.

논문심사 기준

1. 본 학회지 투고규정에 따라 투고된 논문을 심사한다.
2. 본 학회 윤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3. 논문 1편당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며, 각 논문의 심사위원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4.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5. 논문심사는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종설에 따른 표준화된 평가서 양식과 심사자의 구체적인 심사평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6. 심사판정은 다음과 같다: 3인의 심사위원은 각각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중 하나로 판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결과는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 1) 각 심사위원의 결과 중 가장 낮은 심사평을 준 심사위원의 결과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단, 1인의 심사위원만 ‘게재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는 3인의 심사결과와 함께 제 4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추가 의뢰하여, 그 판정에 따른다. 만일 제 4의 심사위원이 게재 가능 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하되 관련 심사위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 3)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불가’로 판정할 경우,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7. 심사결과 판정이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1) ‘게재 가능’으로 판정된 논문은 내용의 교정 없이 채택한다.
 - 2)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후 이를 확인하고 채택한다.
 - 3)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했던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 4) ‘게재 불가’ 판정기준은 논문 내용이 다음 중 어느 한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 ① 연구내용이나 결과가 선행연구와 차이가 없는 경우
 - ② 연구결과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
 - ③ 대폭적인 수정을 하여도 게재가 불가능(게재 불가)하다고 판단된 경우
 - ④ 본 학회 연구출판윤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8. 심사내용 및 결과는 저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9.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논문이 학회지 투고규정에 맞지 아니하다고 편집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정해진 기일 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11. 투고자가 수정된 원고를 제시된 날짜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호로 게재를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사)한국응급구조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9년 4월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2년 6월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4년 5월부터 시행한다.